

## 북한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

모든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에서 엄마로 살기란 각별히 험난합니다. 북한에서 엄마들과 임신부들은 아기가 튼튼하도록 임신 기간에 자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서포 진료소의 손일해 박사님은 임신부와 아이들이 스프링클스를 좋아하며 병원에서 스프링클스가 동이 나면 굉장히 좌절한다고 퍼스트 스텝스 팀에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손 박사에게 스프링클스가 없으면 아기들이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잦으며 호흡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성들과 아기들은 스프링클스를 공급 받으면 상태가 호전됩니다.



의사와 갓 출산한 산모가 서포 진료소에서 만나고 있다.

4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인 박금순 씨는 스프링클스를 복용하기 전에는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졌다고 퍼스트 스텝스

팀에게 말했습니다. 미량영양소를 매일 섭취함으로써 그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금순 씨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를 낳으리라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스프링클스 수혜 여성의 수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후원에 달려 있습니다. 스프링클스 프로그램 후원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선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메주콩

퍼스트 스텝스는 콩우유 제조용 메주콩을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북한 재배 공급분을 추가로 보충하고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주콩 구매를 위한 \$ \_\_\_\_\_ 를 후원합니다.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50로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들에게 18개월 분의 스프링클스를 그리고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1년 분의 스프링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량영양소의 부족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지능발달에 영양을 줍니다. 스프링클스는 구루병을 예방하며 2세 미만 아기들의 주 사망 원인인 설사와 폐렴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스 구매를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prov. \_\_\_\_\_ postal 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First Steps and forward to: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IN: 878227511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us at: 604.732.0195 or www.firststepscanada.org

# 퍼스트 스텝스

news

2014 봄 호

## 메주콩 부족으로 우려 확산

3월 22일에서 4월 1일까지, 필과 린다 샤프란 부부와 수잔 리치 대표가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10일의 방문은 저희 팀이 매일 3~6개 협력 사업장과 만나는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업장 방문은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과 린다, 수잔은 퍼스트 스텝스의 콩우유와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 임신부 및 아기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 이번 방문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원산 애육원 (고아원)의 어린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콩우유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필요합니다. 유엔에서는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3분의 1이 발육 부진, 영양 결핍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북한의 콩 생산량이 2012년에 2011년 대비 31%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확분(2013)은 재배 초기의 폭우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현지 협력자들의 콩우유 프로그램을 위한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퍼스트 스텝스는 설비(바이타카우와 바이타고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메주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기부 덕분에 퍼스트 스텝스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다른 하이라이트는 몇몇 현지 협력자들과 짧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산 중등학교의 이정희 교장과 대화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교장이 되기 전에 평양에서 사범대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장선생님 부부는 두 분 다 고아였습니다. 이 교장은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다 내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정희 교장 선생님이 이토록 훌륭한 교장이신 이유입니다.

## 퍼스트 스텝스 대표의 말

저는 이정희 원장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에 고무되곤 합니다. 말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은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리는 풍요를 북한 주민들과 나누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내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콩우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 덕택입니다.

퍼스트 스텝스 방문자들과 사역이 이 원장 선생님께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되어 또한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면 이 원장은 이전 방문에서 만났던 다른 후원자 개개인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시곤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명심하고 여러분의 후원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콩우유 한 컵이 없다면 이 어린이들은

왜소증과 영양결핍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퍼스트 스텝스의 파트너 덕분에 이 원장 선생님의 학생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3-4) 수잔 리치

## 홍용수 님: 한 번에 한 통씩 10년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 십만 명에게 매일 콩우유 한 잔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메주콩과 콩우유 생산 설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 덕입니다. 하지만 콩우유는 어떻게 매일 어린이들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콩우유를 (대개 3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생산센터에서



홍용수 님

어린이들에게 운반하시는 우리의 헌신적인 북한 파트너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우리 확인 팀은 남포

항구 탁아 유치원 공급소에서 일하시는 홍용수 님(50세)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자전거로 콩우유를 한 번에 한 통씩 매일 4통을 어린이들에게 배달해 왔습니다. 매번 이동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용수 님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결근이 원지도 모릅니다.” 홍용수 님은 60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확인 팀이 사업장에서 떠날 준비를 하자 그는 퍼스트 스텝스와 함께 일하기 전에는 콩우유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고요.” 그가 감사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홍용수 님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자원봉사자 소개: 필 샤프란

필 샤프란 님과 같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은 퍼스트 스텝스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필은 수 년 동안 퍼스트 스텝스의 이사회에서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필은 퍼스트 스텝스와 함께 메주콩과 스프링클스가 북한 전역에 잘 도착하고 배포되는지를 확인하는 북한 방문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BC주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후원 홍보 직책을 종료하자마자 퍼스트 스텝스의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필은 시간과

재능과 전문성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사역에 대한 필의 지속적인 후원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사역에서 커다란 축복입니다.



필은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딤편 6:18

## 퍼스트 스텝스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퍼스트 스텝스 팀이 확인 방문을 가게 되면 북한 체류 기간에 탁아소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고아원)들을 방문하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가우면서도 섭섭한 경험이었습니다. 봄 학기가 3월 말에 끝나기에 그것은 큰 아이들이 상급 고아원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이지요. 원산 애육원(고아원)에서는 4월 1일에 167명을 초등학교원으로 올려 보내고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정정숙 원장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이사를 나가기 전에 ‘가능한 한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싶다고 퍼스트 스텝스에



원산 애육원(고아원)의 어린이가 콩우유를 마시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전했습니다. 원산 중등 학원에서는 어린이 123명이 졸업합니다. 이정희 원장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어떤 학생들은 군대를 가지지만 많은 학생들은 공장이나 농장 근로자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지 질문하자 정 원장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훌륭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리고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이지요.”

## 콩우유 배달 트럭의 보수

이번 북한 방문 때는 배달 트럭 두 대(각각 남포와 원산)의 엔진을 재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도 구매했습니다. 이 4기통 일체 트럭들은 퍼스트 스텝스가 10년도 더 전에 캐나다 화로 각각 8,500달러에 구입한 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트럭들은 한 번에 각각 30개의 스테인레스스틸 우유통을 싣고 수십 곳의 유치원과 탁아소들을 매일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트럭 모두 엔진을 재조립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아래쪽 엔진(크랭크샤프트)은 포함되지 않으며 헤드(밸브)도 아마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보수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방문 기간에 구매한 엔진 부품으로는 실린더 슬리브, 피스톤 링,

베어링과 헤드 개스킷 등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재료를 사는 데 미화 580달러가 들었습니다. 엔진은 트럭 운전사들이 직접 조립할 것이며 운전사들은 보수 후에 트럭을 최대 5년 정도 더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융통성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습니까. 새 트럭을 사자는 언급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현지 협력자들은 이미 10년 넘은 엔진의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장들은 이

차량들을 5년 더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트럭들이 매일, 하루 종일, 노면 상태가 대단히 열악한 포장 및 비포장도로를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더욱 대단해보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10년 도 전에 8,500 달러에 구입한 두대의 트럭 중 한대